

탐라국 수도 성곽...선조들의 축성법 알려줘

[24-제주성지] 일제강점기 때 바다 매립 골재로 사용돼 자취 사라져

데스크승인 2014.08.14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제주성지(濟州城址)는 삼국시대 탐라국의 수도 부근 성곽으로 축조됐던 성의 터다.

제주에 널린 화산암을 이용해 쌓았던 성벽과 건물은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 제주시 남문로터리 동쪽 오현단과 이웃한 곳에 성의 일부가 복원돼 197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됐다. 선조들의 축성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란 가치를 인정받아서다.

제주성이 처음 만들어진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태종실록에 1411년(태종 11) 정월 제주성을 정비하도록 명했다고 기록돼 있어 1411년 이전에 축성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읍석성(제주성)의 둘레가 910보란 기록이 보이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제주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4394척이고 높이는 11척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지금의 산지천과 병문천 사이에 있던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후 성곽 확장에 기초가 된 지점이다.

제주성은 고려 숙종 때 둘레 4700척, 높이 11척으로 확장됐고 이후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증축됐다.

1512년(중종 7)에 삼포왜란 수습책의 일환으로 목사 김석철이 제주성의 둘레를 5486척으로 늘리고 방어시설까지 갖췄다. 당시 제주성 안에는 먹는 물이 없는 탓에 성안 사람들은 항상 식수난에 시달렸는데 이때 성의 남쪽 큰 바위 아래 물이 솟아나는 한 길 깊이의 구멍인 '가락귀'에 별도로 겹성을 쌓아 급수 편의를 도모했다는 기록도 전하고 있다.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 때 영암에서 패퇴한 왜선 40여 척이 화북포에 정박한 후 왜적 1000여 명이 침입해 제주성을 공격했지만 김수문 목사와 성안 사람들이 이들을 격퇴했다.

1565년에는 제주목사 곽홀이 을묘왜변 당시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성곽 규모를 늘리고 격대(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이나 측면에서 공격하는 시설물)와 타첩(성벽 위에 낮게 쌓은 담)을 설치했다. 이듬해 곽홀 목사는 동성을 성 밖의 언덕까지 옮겨 쌓아 가락천과 산지천을 성안에 두고 식수난과 물난리에 대비했는데, 이때 성 둘레는 7340척으로 기록됐다.

1599년(선조 32)에는 목사 성윤문이 성벽 높이를 5척 더 높여 16척으로 쌓아 현재 성벽의 모습을 갖췄다. 1653년(효종 4)에 와서는 목사 이원진이 동문과 서문, 남문을 세우고 산지천 남쪽과 북쪽에 수구문(水口門)을 설치했다.

이어 1780년(정조 4) 목사 김영수는 산지천의 범람으로 민가에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산지천 서쪽에 바위로 길이 500여 척, 높이 9척의 간성(間城)을 축조하고 별도천 상류에는 보를 쌓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그런데 제주성은 일제강점기 때 제 모습을 잃고 말았다. 성벽의 돌들이 바다 매립에 쓰였기 때문이다.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제주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벽이 헐려 바다를 매립하는 골재로 사용되면서 제주성의 자취가 사라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의 측대와 제주의료원 남쪽과 서쪽, 남문로터리 동북쪽 등에 남은 석축물 등도 제주성의 흔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